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은행이 플랫폼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 이슈분석** 실적 부진 속, 증권사간 양극화 심화 전망
- 금융경영브리프**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받는 글로벌 은행
2023년 글로벌 리테일 banking 주요 트렌드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비둘기파적 연준과 고용호조 속 변동성 확대
외 환 : 시장과 소통하기 힘들지? 그리운 연준에게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김종현(jh.kim_)

논단

교수 강형구

이슈분석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김종현(jh.kim_)
수석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은행이 플랫폼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 04 **이슈분석** 실적 부진 속, 증권사간 양극화 심화 전망
- 08 **금융경영브리프**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받는 글로벌 은행
2023년 글로벌 리테일 बैं킹 주요 트렌드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비둘기파적 연준과 고용호조 속 변동성 확대
외 환 : 시장과 소통하기 힘들지? 그리운 연준에게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은행이 플랫폼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강 형 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hyoungkang@hanyang.ac.kr)

앱스토어, 운영체제, 클라우드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지배하는 ‘플랫폼의 플랫폼’은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 안보, 국익과 관련되어 시장 전략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분야이다. 은행은 경쟁이 치열한 콘텐츠/서비스 플랫폼 분야가 아닌 ‘플랫폼의 플랫폼’에서 통합 전략을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은행조직과 금융시장과의 경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내부역량/자원 개방으로 핀테크와 디지털 기업을 락인(lock-in)시키고, C-Lab를 통해서 내부혁신을 생태계로 배출하고, CVC를 통하여 은행과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플랫폼은 안정적인 핵심(stable core)과 이질적인 보완재 공급자간 (complementors)의 상호의존성, 여기에 파생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들로 특징된다¹⁾. 플랫폼은 거래를 원활히 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플랫폼은 시장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개자(go-between)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에는 경영하는 주체가 있고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규모나 특히 범위를 플랫폼 자체가 온전히 제어(control)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시장-조직 하이브리드, 조직의 조직(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메타조직 (meta-organization)으로 규정된다²⁾.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ecosystem)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전략이 성공하려면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시장 전략(market strategy)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을 포섭하는 비시장적 전략(nonmarket strategy)이 필수다. 금융기관의 플랫폼 전략도 마찬가지다. 시장 전략과 비시장 전략을 결합한 통합 전략(integrated strategy)이 중요한 것이다.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시장과 비시장 전략을
통합한 전략이 중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Baldwin, C. Y., & Clark, K. B. (2000). *Design Rules: The power of modularity*. MIT Press.

[2] Kretschmer, T., Leiponen, A., Schilling, M., & Vasudeva, G. (2020). "Platform ecosystems as meta-organizations: Implications for platform strateg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 소수의 빅테크가 지배중인 온라인 플랫폼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을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

콘텐츠/서비스(Contents and Services) : 매칭(matching)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 디자인(market design) 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한다.⁴⁾ 금융기관들은 물론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메타정보(Meta Information) : 콘텐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광고, 검색, 포털처럼 ‘정보의 정보’를 다룬다. ‘의미 있는’ 메타정보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밖에 없다.

앱스토어와 운영체제(App Stores and Operating Systems) : 강력한 소수의 소위 빅테크가 해당 영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국내 디지털 산업이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다.

클라우드(Clouds) : 가장 업스트림(upstream)의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 인프라 플랫폼들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역시 소수의 빅테크가 지배한다.

❖ 국내 금융기관이 ‘플랫폼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의 플랫폼’이
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강자가
될 수 있어

앱스토어, 운영체제, 클라우드는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비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예를 들어 유럽은 오로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다. 전형적인 비시장 전략이다. 한국이 안정적이고 진정한 디지털강국이 되려면 ‘플랫폼의 플랫폼’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에 균열이 발생하며 기회가 생기고 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한 것도 구글과 애플의 지배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플랫폼’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³⁾ Kang, H.-G., Kang, C., & Jeon, S. (2022). “An Innovative Framework to Classify Online Platform”.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1(1), 59-90.

⁴⁾ Roth, A. E. (2015). *Who Gets What-And Why: The New Economics of Matchmaking and Market Design*. Houghton Mifflin Harcourt.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디지털경제에 기여하고 이러한 논리와 비시장 전략으로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에서 ‘플랫폼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금융은 다른 디지털 산업과 다른 특징이 있고, 기술혁신이 금융에 근본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플랫폼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면의 한계로 추상적일 수 밖에 없으나 다음과 같은 OSC(Open, Spin-off, CVC) 전략을 제시한다.

Open Strategies : 금융권의 데이터와 규제역량 등 무형자산을 외부에 확대하고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은행의 생태계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개방혁신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API,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이 발전하면 앱스토어가 된다. 국산 원스토어는 구글, 애플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지만 금융 스토어는 규제, 데이터 등 이유로 다를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Data-driven Value-enhancing Strategies를 구축한다.^[5]

Spin-off Strategies : 삼성 C-lab 사례를 참고한다. 필자는 하나은행과 자율주행 자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은행의 내부 시스템에 구현되어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시스템을 아예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아마존 클라우드 등에 구현한 후 국내외 금융기관에 aaS(as-a-Service) 형태로 제공한다면 수천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원들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여 플랫폼들을 생산하는 ‘플랫폼의 플랫폼’ 조직이 되어야 한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Strategies : 금융지주가 보유한 CVC를 잘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공항·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CVC 자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와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대상 선정시에 “어떻게 하면 은행 등이 금융에서의 ‘플랫폼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은행의 생태계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해야 한다. 

‘플랫폼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OSC 전략

무형자산을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생태계로 들어오도록 유도

은행의 시스템을 별도 회사로 독립시켜서 aaS 형태로 제공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CVC와 모회사와의 시너지 창출

[5] Kang, H.-G., Jang, G.-Y., & Choi, M. (2022). “Data-driven Value-enhancing Strategies: How to Increase Firm Value Using Data Scienc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32(3), 477-495

실적 부진 속, 증권사간 양극화 심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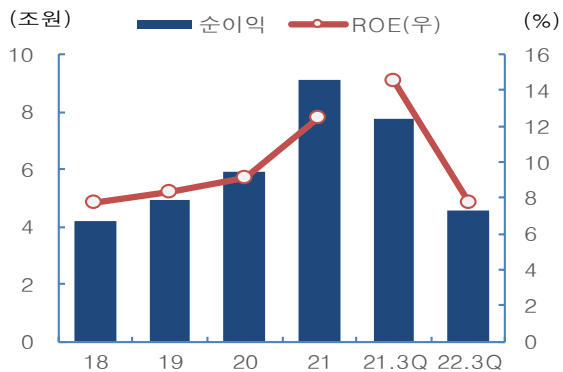
안 성 학 연구위원(shahn0330@hanafn.com)

최근까지 사업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증권사의 자본확충 움직임은 대형사에서 중소형사로 확산되어 왔다.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금융 등 IB 자산 확대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당분간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은 중소형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형사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험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모방보다는 개별 증권사별로 특유의 강점을 키워나갈 때다.

■ 증권업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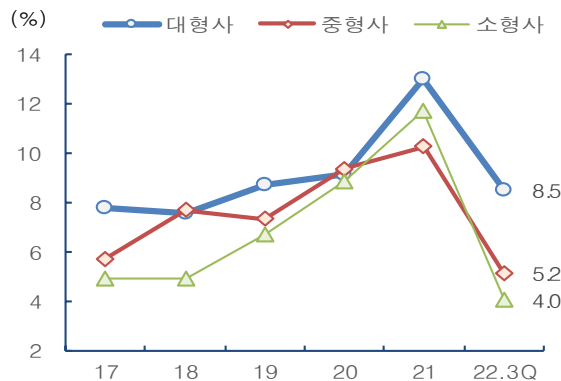
- 주가하락과 금리상승 등 전반적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업 수익성이 크게 감소
 - 코스피지수(pt) : 2,980('21.4Q)→2,763('22.1Q)→2,604(2Q)→2,394(3Q)→2,341(4Q)
 - '21년 순이익과 ROE가 각각 약 9.1조원,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2.3분기(누적) 순이익이 4.6조원으로 전년비 41.2% 감소(연환산 ROE 7.7%)
-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수익성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중소형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일부 증권사는 2022년 연간으로 적자를 시현할 전망
 - 증권사 규모별 ROE 변화('21년→'22.3Q 누적, 연환산) : 대형사 13.0%→8.5%, 중형사 10.3%→5.2%, 소형사 11.7%→4.0%
- 이는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와 IB 실적 급감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금융에 집중한 중소형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

■ 증권사 전체 순이익과 ROE 추이



주 : 3분기 순이익은 누적 수치이며 ROE는 연환산 수치
자료 : 금융감독원

■ 증권사 규모별 ROE 변화



주1) 3분기 ROE는 연환산 수치, 국내 증권사만 집계
주2) 자기자본 1조원, 3조원을 기준으로 증권사 규모를 분류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작성

■ 최근까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증권사들의 자본확충 움직임이 대형사에서 소형사로 확산

- 대형사는 이미 2017~2018년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IT 투자, 리테일 손님확보, IB 영업 확대 등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 개선
 - 대형사의 ROE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사가 '16년 4개사에서 '22년 9월말 8개사로 크게 증가
 - 대형사는 과거의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IB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반면 중소형사는 대형사의 사업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목격하면서 후발적으로 IB 영업 확대 등을 위한 자본확충에 참여
 - 중형사는 '20년 전후로 자본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소형사의 경우 '19년 이후 최근까지도 자본확충을 실시

■ IB 부문이 주요 수익원으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IB자산을 빠르게 확대

- 대형사는 자본확충과 더불어 2017년부터 코로나19 위기 직전까지 IB자산을 빠르게 확대
 - 대형사는 기존의 증권발행·중개 및 IB자문 뿐만 아니라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대출, 대체투자 등 IB자산을 확대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기점으로 IB 자산을 축소·동결하는 등 위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22년부터 IB 자산을 다시 확대
- 반면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늦은 2019년부터 IB자산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IB자산 증가율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빠른 증가세를 시현

■ 증권사 규모별 자본확충 추이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대형사	21.6 (7.8)	23.8 (10.4)	25.2 (6.0)	25.9 (2.8)	27.2 (4.7)	27.5 (1.1)
중형사	5.5 (0.0)	5.7 (3.6)	6.0 (5.5)	6.6 (10.0)	7.0 (6.0)	7.0 (0.0)
소형사	3.9 (0.0)	4.0 (2.6)	4.2 (5.6)	4.5 (7.7)	4.9 (7.4)	5.1 (5.2)
전체	30.9 (5.3)	33.5 (8.2)	35.4 (5.9)	37.1 (4.6)	39.0 (5.3)	39.6 (1.6)

주 : 자본확충 규모는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22.9월은 21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증권사 규모별 IB 자산 추이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대형사	42.2 (34.9)	62.4 (47.9)	78.3 (25.4)	69.0 (-11.9)	69.2 (0.3)	75.4 (9.0)
중형사	6.8 (1.1)	6.8 (0.2)	8.4 (24.1)	8.8 (4.8)	10.4 (17.9)	11.4 (9.2)
소형사	2.2 (8.9)	2.3 (4.7)	3.6 (55.9)	3.7 (2.8)	4.7 (26.8)	5.1 (8.1)
전체	51.2 (27.9)	71.5 (39.8)	90.3 (26.3)	81.5 (-9.7)	84.3 (3.4)	91.9 (9.0)

주 : IB자산은 집합투자증권·대출금·매입대출채권·사모사채·채무보증.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22.9월은 21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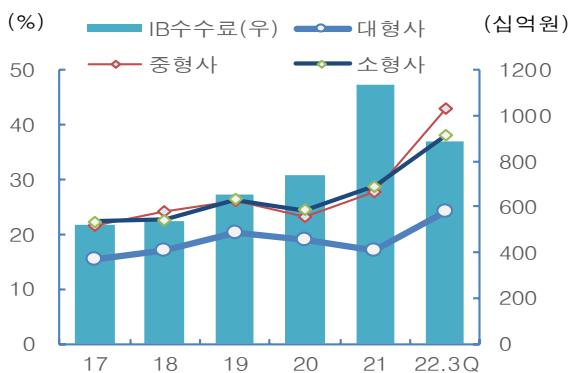
■ IB 부문 의존도 증가가 지금까지는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나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악화된 IB 시장환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2년 4분기 이후부터는 IB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증권사 수익성 악화를 가중시킬 전망
 - '22년 3분기까지의 이익 감소는 IB수수료 감소보다는 주식거래 감소에 따른 브로커리지 감소, 추가하락 및 금리상승에 따른 트레이딩 실적 부진 영향이 더 큼
- 특히 상대적으로 IB 의존도가 큰 중소형사의 경우 IB 실적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이 대형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대형사는 중소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로커리지, 자산관리부문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어 IB 실적 감소에 따른 이익감소 영향이 덜할 전망

■ 부동산금융 등 특정 IB사업으로의 쏠림심화로 우발채무가 크게 증가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위험요인이 더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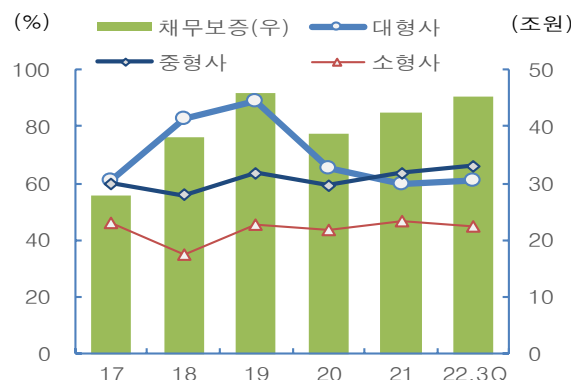
- 코로나19 및 해외자산 가격 상승으로 IB 사업 대상이 덜 진행이 제한되고 수익성이 낮아진 해외 대체투자에서 국내 부동산금융으로 집중되면서 쏠림현상 심화
 - 부동산 채무보증을 통한 IB 비즈니스가 증가하면서 '22년 9월말 기준 우발채무가 45.1조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0.9%를 차지하는 등 크게 증가
- 중형사와 일부 소형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높고 보유 물건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더욱 부각
 - 대형사는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형사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형사보다 더 커졌으며 일부 중소형사는 90%를 넘는 곳도 존재
 - 대형사의 부동산금융에 대한 우발채무가 많으나 중소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순위 물량이 많아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증권사 규모별 순영업수익 대비 IB수수료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증권사 규모별 자본금 대비 우발채무 비중




주 : 우발채무가 있는 증권사만 대상으로 함
자료 : 금융감독원

■ 향후 시장환경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포트폴리오 구조상 차이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증권사 IB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IB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의 수익성 감소는 더욱 심화할 전망
 - 신규 부동산금융 딜 실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사업장의 분양률도 저조해지면서 회수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
- 더구나 보유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신용위험이 확대될 경우 중소형사의 건전성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인력 및 부서조직 축소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
- 반면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IB 자산 보유, 자산관리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두터운 손님층과 풍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전망
 - 대형사는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양질의 부동산금융 물건 보유로 우발채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오히려 부동산금융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

■ 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특정 수익원을 쫓는 사업형태가 아닌 강점을 바탕으로 한 특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시장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및 IB 사업 확대 과정에서 증가한 증권 및 우발채무 등 위험자산 운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 필요
-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및 기업수요 변화,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익원 발굴이 필요
 -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비상장주식 및 증권형 토큰(ST)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
 - 유망 벤처기업 발굴을 통해 IB 부문에서 부동산 금융 이외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인 운용방안을 모색
-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반복하고 있는 특정 사업부문 등에 대한 쏠림현상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변동성 증가를 초래하는 사업행태는 지양될 필요
 - 최근의 부동산 금융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 사업부문이나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반복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무엇보다도 타 증권사의 사업 전략을 모방하기보다 개별 증권사별로 특유의 강점을 키워나갈 필요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받는 글로벌 은행

김 종 현 연구원(jh.kim_@hanafn.com)

COP26 이후에도 글로벌 은행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공급이 지속되면서 그린워싱 비판과 화석연료 관련 금융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은행들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더 빠른 속도의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유럽 은행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국내 금융사는 국내 발전 구조 상 脫석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 밖에 없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를 통한 ESG 정책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 COP26^[1] 이후에도 글로벌 은행들의 화석연료 투자가 지속되면서 그린워싱 비판 확산

- 글로벌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표방하면서도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추구가 계속된다는 비판을 받는 등 그린워싱 관련 논란이 지속
 - '23년 1월 금융 비영리단체 'Reclaim Finance'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NZBA(Net Zero Banking Alliance)에 가입한 대형은행 중 56곳이 동맹 가입 이후 134건의 대출과 215건의 인수계약을 통해 102개 화석연료 기업에 2,700억 달러를 대출
 - 금융 비영리단체 'Sierra Club'에 따르면 자산 중 화석연료 관련 비중이 GFANZ^[2] 비가입 은행보다 가입 은행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린워싱 논란
- 2022년 글로벌 은행들은 석유, 가스, 석탄 부문에 대해 5,310억 달러의 채권과 대출을 편성하여 2021년 6,575억 달러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감축률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 함

■ 美 대형은행 주주들은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자금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박^[3]

- JP모건 체이스, Citi 그룹, BofA 등 미국 대형은행 주주들은 석유와 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 또한, 美 대형은행이 2020년 이후 화석연료 프로젝트 감축에 진전을 이뤘음에도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기후목표 달성방법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 美 6대 은행 화석연료 투자액(억달러) : 2,511 ('18) → 2,564 ('19) → 2,106 ('20) → 2,205 ('21)

[1] 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26) : '21년 10월 英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 : 파리기후협약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4월 글래스고에서 조직된 금융연합체로 HSBC, AVIVA, BofA, 모건스탠리 등이 가입

[3] "Big Banks Told to Phase Out Financing of New Fossil-Fuel Projects", Bloomberg, 2023.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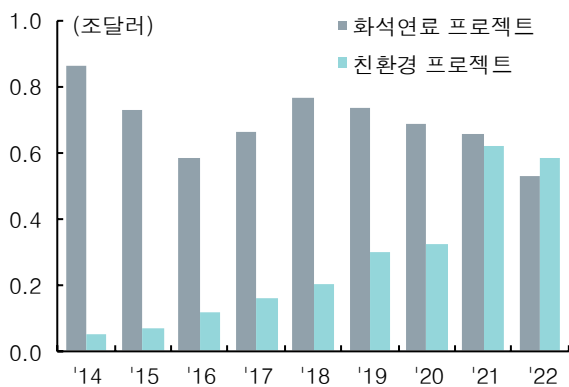
■ 한편, 유럽 대형은행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에서 나아가 친환경 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

- COP27을 전후로 유럽 지역 대형 금융사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 제공 중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
 - 英 Lloyds Bank는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관련 금융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22.10)
 - 英 HSBC는 신규 유전, 가스전 및 관련 인프라와 프로젝트에 신규 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하였고, '30년까지 최대 1조 달러의 지속가능금융을 제공하기로 발표 ('22.12)
 - 佛 BNP Paribas는 '30년까지 석유 대출 80% 감축,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계획 발표
- 유럽 대형은행의 화석연료 대출 잔액은 미국 대형은행에 비해 규모가 적어 脫탄소 정책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분석
 - '16~'21년 글로벌 화석연료 관련 금융 잔액 상위 4개 은행은 JP모건, Citi, Wells Fargo, BofA 등 미국 대형은행으로, 유럽 지역 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은 잔액을 기록

■ 국내 발전 구조 상 국내 금융사의 급진적 脫석탄은 어려우나, ESG 정책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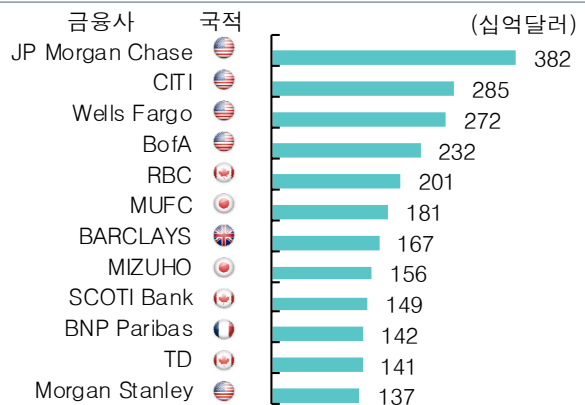
- 국내 금융권은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발전산업 특성 상 脫석탄 흐름을 획기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글로벌 脫석탄 흐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22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 석탄 32.4%, 원전 29.8%, 가스 27.2%, 신재생 9.2%
- 다만, 중장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과 기후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脫석탄 금융 참여는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석탄 금융 회수 계획을 고려하는 금융기관도 증가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적극 활용 및 석탄 감축 유도를 통해 '36년까지 원전·신재생 비중은 각각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금융사는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기후 목표 달성 방법을 제시하는 등 ESG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친환경 정책에 대한 주주 가치 실현이 필요 

■ 글로벌 화석연료 및 친환경 프로젝트 대출, 채권



자료 : Bloomberg

■ 2016~2021년 누적 글로벌 금융사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



자료 : Fossil Fuel Finance Report 2022

2023년 글로벌 리테일 बैं킹 주요 트렌드

최 희 재 수석연구원(heejae.choi@hanafn.com)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리테일 은행은 고객의 변화된 니즈를 고려하여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리테일 은행은 고객경험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도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단순한 편의성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글로벌 리테일 은행은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경영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리테일 은행들도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실적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우려
 - World Bank '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3.0% ('22.6월) → 1.7% ('23.1월)
-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리테일 은행들은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 강조하고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서비스와 우수한 고객경험(CX)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⁴⁾

■ 고객 니즈에 따라 고객경험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


- (스마트 지점) 은행은 스마트 지점의 셀프뱅킹 및 고객경험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및 교차판매 등의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할 전망
 - 은행지점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 중 64%가 셀프뱅킹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밝힘
- (순환 경제)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경제모델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및 지속가능 경영을 확대하여 사회적 영향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임베디드 금융) 비금융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증가에 따라 은행도 오픈뱅킹, 서비스형 बैं킹(BaaS)을 통해 고객 경험 제고 예상
 - 현재 글로벌 은행의 38%가 자체적인 Baa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28%는 제3자 BaaS 플랫폼을 사용하고 16%는 자체적인 BaaS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밝힘
- (M&A)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 M&A 기회를 모색하고 디지털 기능을 강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전망
 - 지난 10년간 스타트업은 1.3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시장환경 악화로 '22.1Q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71% 감소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

[4] "Retail Banking Top Trends 2023", Capgemini, 2023.01

■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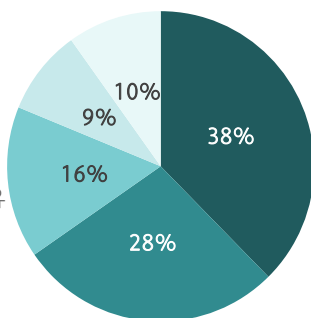
- (디지털 신원) 은행에게 고객의 금융·비금융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신원 앱 이용자 수는 '20년 10억 명에서 '25년 62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 (클라우드 시스템) 팬데믹 영향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은 이미 본격화되었으며 비용효율성(CIR)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
 - Santander는 '22년 인프라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했으며 '23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
- (합성 데이터)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을 통해 시장행동 파악, 대출결정 개선, 금융사기 방지 등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은행의 데이터 활용도 및 관리체계가 부족한 편으로 경영진 80%가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73%가 데이터가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
- (탈중앙화 금융) 은행의 탈중앙화 금융(Defi) 도입이 이미 활성화되었으나 '22년 가상자산 시장 급락과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
 -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Defi의 총 예치금이 '20.9월 15억 달러에서 '21.12월 3,038억 달러로 급증하기도 했으나 '22년에는 고점 대비 68.3% 하락한 963억을 기록

■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한 Biz전략 구축이 필요한 시점

-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고객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
- 국내은행도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최신 기술력을 활용한 고객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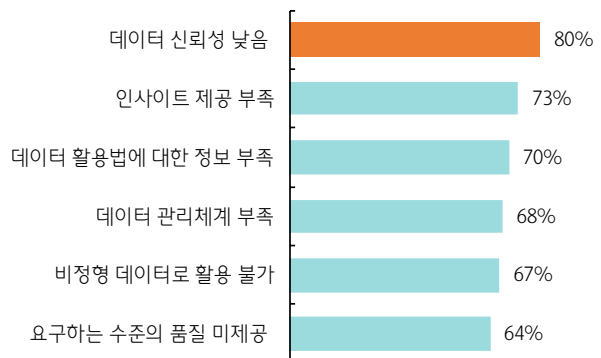
■ 글로벌 은행의 BaaS 도입 현황

- 자체적 BaaS 플랫폼 보유
- 외부 BaaS 플랫폼 적용
- 자체적 BaaS 플랫폼 개발중
- BaaS 플랫폼 구축 계획 보유
- BaaS 플랫폼 도입에 대한 계획 없음



자료 : Capgemini

■ 은행 데이터 관리 문제점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



자료 : Capgemini

금리: 비둘기파적 연준과 고용호조 속 변동성 확대

윤 석 진 연구원(sjyun826@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에 하락하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美 고용지표로 급등했다. 국내금리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재반등 경계감과 대외금리 급등세로 상승했다. 2월 FOMC는 금리인상 폭을 25bp로 축소하며 속도조절에 나섰고,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해 물가위험에 대한 판단을 낮췄다. 국내금리는 美 CPI 및 금통위의 동결 가능성에 주목하며 변동이 예상되나, 경기 둔화 추이를 감안 시 상방위험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연준과 ECB의 비둘기파적 회의에도 강한 美 고용지표 여파로 급등

- 2월 FOMC는 기준금리 인상 폭을 재차 축소(25bp)해 추가 속도 조절을 단행했으며, 성명서 문구 수정 및 파월의 기자회견담회 내용은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Dovish)
- ECB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50bp 인상 계획을 시사했으나, 물가 리스크가 이전에 비해 더 균형적이라는 총재 발언 등이 완화적으로 평가
 - 영란은행 또한 50bp 인상을 단행했으나, 성명서 내 ‘강력하게(forcefully)’ 등의 표현을 제거한 점, 인플레이션이 고비를 넘겼다는 총재 발언 등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 그러나 美 1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 51.7만 명을 기록해 예상치(+18.8만)를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도 3.4%(예상 3.6%)로 하락하면서 추가 긴축 우려 재부각
- 美 금리는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태도에 하락하다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급등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1.27일 4.20/3.51 → 2.2일 4.11/3.40 → 9일 4.49/3.66


■ 국내금리는 수출 부진 심화 불구, 물가 경계감과 대외금리 급등세로 인해 상승

- 1월 한국 수출액은 \$462.7억(-16.6%)을 기록해 크게 위축됐으며, 對중국 수출의 감소폭 확대(-31.4% YoY), 반도체 수출 악화(-44.5% YoY)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
 - 한국 수출액(% YoY) : 22.10월 -5.8 → 11월 -14.1 → 12월 -9.6 → 23.1월 -16.6
- 한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공공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5.2%를 기록해 재상승
 -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 22.10월 5.7 → 11월 5.0 → 12월 5.0 → 23.1월 5.2
- 국내금리는 수출 부진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 대내 물가위험이 여전히 이어지는 점과 美 고용 호조로 인한 글로벌 금리 급등세에 연동되며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1.27일 3.30/3.28 → 2.3일 3.11/3.15 → 10일 오전 3.41/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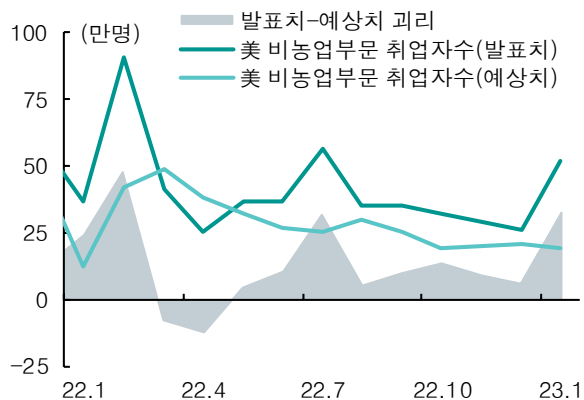
■ FOMC, 기준금리 25bp 인상으로 지난 12월 회의에 이어 재차 긴축 속도조절 단행

-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으나, 인상 폭은 25bp로 축소해 12월(50bp)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속도 조절(목표상단 4.5%→4.75%, 만장일치)
- FOMC 성명서의 문구 변화를 통해 물가 위험 완화와 인상 종료 시점 근접을 시사
 - 성명서 내 ‘미래의 인상 속도(pace)를 결정함에 있어’라는 표현이 ‘미래의 인상 정도(extent)를 결정함에 있어’로 수정됨에 따라 금리인상 마무리 단계에 근접함을 암시
 - 물가 부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됐다(eased)’라는 표현이 추가되었고,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하향조정
- 파월 연준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시작’ 발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가 추세적임을 인정했으며, 두어 차례(a couple of) 추가 인상 이후 동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
 - 기자간담회 발언 중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한 점과 최근 시장이 주도한 금융환경 완화에 대해 별다른 경계감을 내비치지 않았던 점 등이 부각
- 시장은 FOMC 결과에 대해 비둘기파적(Dovish)으로 평가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후 발표된 고용지표 충격으로 인해 연준 긴축 우려 재확대
 - 한편, 고용 발표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

■ 국내금리는 美 CPI 등 대외변수 존재하나 국내 경기 둔화 추이 감안 시 상방위험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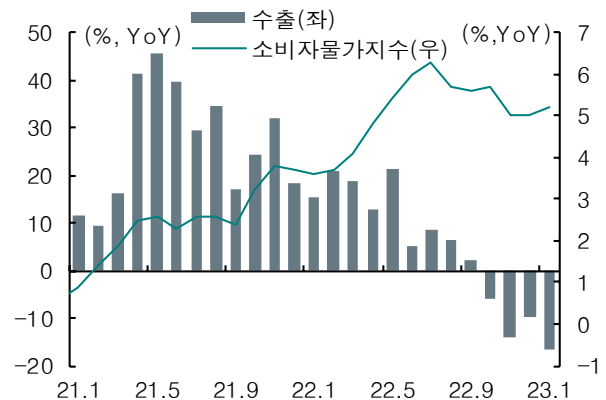
- 美 금리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재부각된 추가 긴축 우려 등으로 시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점차 연준-시장 간의 시각차가 축소될 전망
 - 2.14일 발표될 CPI(예상 +6.2% YoY, 이전 +6.5%)에 주목하며 향후 방향성 모색할 전망
- 국내금리는 2월 금통위의 동결 가능성을 살피며 적정레벨 탐색이 이어지겠으나, 수출 악화-산업생산 부진 등 경기 둔화 추이를 감안 시 추가 상방위험은 제한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30%~3.55%, 3.25%~3.50% 범위로 전망 

■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 수출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외환: 시장과 소통하기 힘들지? 그리운 연준에게

오 현 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1,2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도비시한 FOMC를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를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고,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확대하며 1,26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불안과 국내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상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물가지표 향방 등에 주목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연준 긴축 우려 재부각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반등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PCE 물가 둔화(22.12월 4.4%) 및 2월 FOMC에 대한 비둘기파적 평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한때 1,210원대까지 하락
 - 2월 FOMC에서의 긴축 속도조절(+25bp) 속에 연준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언급
- 그러나 이후 1월 美 고용지표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화가 반등하고 美·中 갈등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1,260원선 상향돌파
- 국내 22.12월 경상수지(+27억 달러)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1월 무역수지의 역대 최대 적자 기록 및 수출 부진 우려 등도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
 - 1월 무역수지는 수출이 16.6% 급감하면서 역대 최대수준인 127억 달러 적자 기록


■ [국제 환율] 긴축 우려로 달러화 강세 전환, 미·중간 갈등 고조로 위안화 약세

- 달러화는 비둘기적인 2월 FOMC 결과로 약세를 지속했으나, 1월 비농업일자리 수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자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강세 전환
 - 또한 연준위원들의 긴축기조 유지 등 매파적 발언들도 강달러 모멘텀 지속 요인
- 유로화는 FOMC 회의를 소화하며 1.1달러/유로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통화정책 회의에서 ECB의 50bp 금리인상 단행에도 불구하고 선반영 인식 등으로 약세 전환
- 위안화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정찰풍선 사태에 대응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발언 등으로 미·중간 갈등 불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약세
- 엔화는 FOMC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완화적 성향의 아마미야 부총재를 BOJ 총재 후보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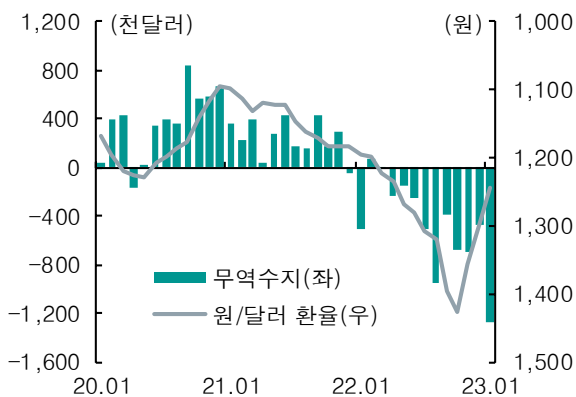
■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금융여건 패러독스’에 주목

-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여건은 완화
 -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의 미국 금융상황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수준 기록
- 이는 고용시장 강세와 서비스물가 상승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는 연준과 빠르게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장간 시각차에 기인
 - 2.7일 파월의장은 고용 호조 등으로 인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증시 상승, 달러화 하락
- 이처럼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통화긴축 효과가 낮아질 수 있으며 정책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
 - 연준은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물가안정 노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
-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신뢰 약화, 미국 물가 및 연준 정책 향방에 따른 변동성 위험에 유의할 필요

■ 당분간 대외적 물가 모멘텀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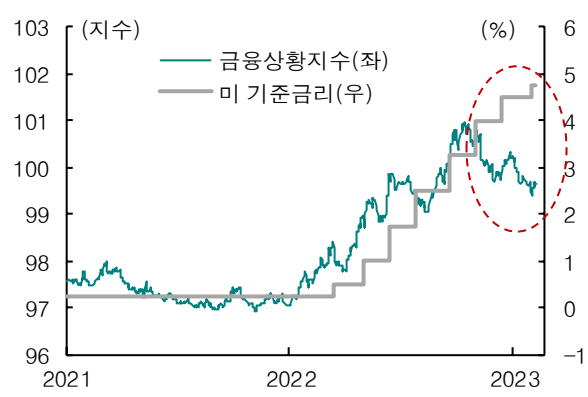
-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경기침체 우려 축소,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 통화정책 판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주목
 - 11일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시장 예상 전월과 동일)과 14일 소비자물가(시장 예상 전월대비 0.5% 상승) 발표를 대기하며 방향성을 탐색
- 또한, 미·중간 긴장관계 고조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 및 국내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원화의 취약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에 유의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1,220~1,280원에서 등락할 전망 

■ 무역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관세청, 한국은행

■ 미국 금융상황지수와 기준금리(상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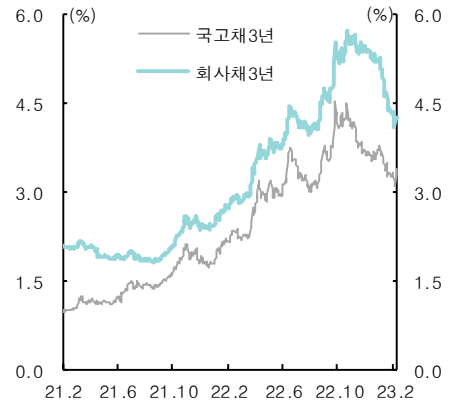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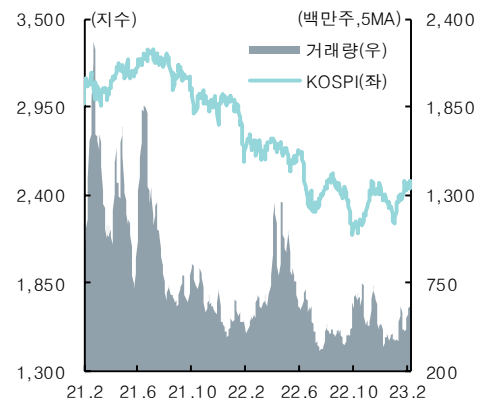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월말	3.34	3.63	3.59	4.34	3.33	3.30
2월 3일	3.49	3.49	3.48	4.08	3.11	3.10
2월 6일	3.49	3.47	3.55	4.24	3.28	3.27
2월 7일	3.51	3.46	3.53	4.24	3.32	3.29
2월 8일	3.48	3.46	3.52	4.24	3.34	3.32
2월 9일	3.43	3.46	3.54	4.25	3.40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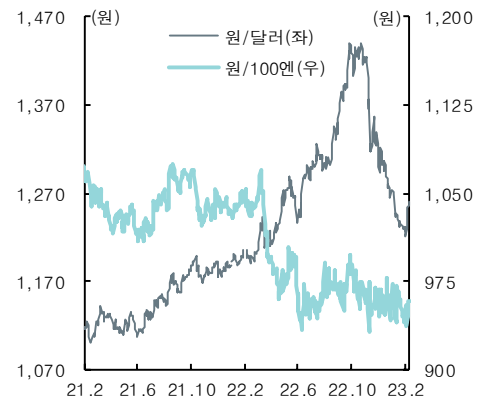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월말	2,425.1	103,948	617	-4,751
2월 3일	2,480.4	80,271	497	5,868
2월 6일	2,438.2	76,713	567	-3,134
2월 7일	2,451.7	75,940	451	-579
2월 8일	2,483.6	80,017	416	5,926
2월 9일	2,481.5	89,864	611	1,501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월말	1,231.9	946.6	182.4	1,339.2
2월 3일	1,229.4	937.2	181.4	1,326.8
2월 6일	1,252.8	944.4	184.3	1,344.2
2월 7일	1,255.3	957.4	184.8	1,346.3
2월 8일	1,260.1	958.7	185.6	1,350.0
2월 9일	1,260.4	957.3	185.9	1,3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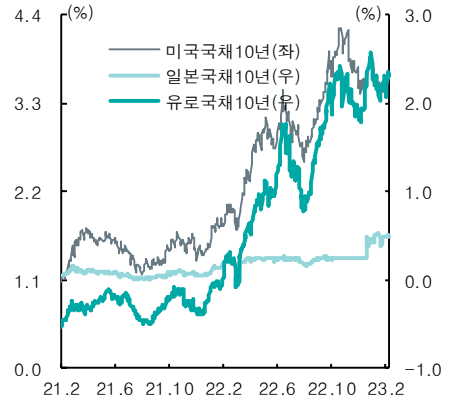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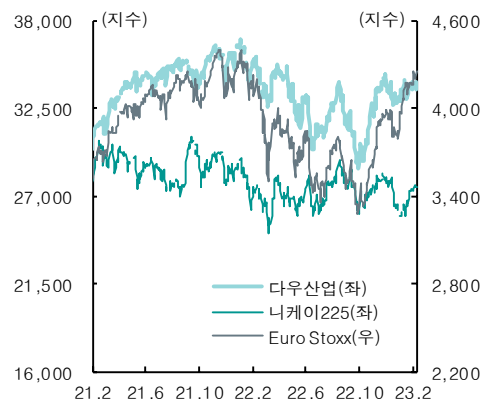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77	4.43	3.87	0.42	2.57
1월말	4.33	4.81	4.20	3.51	0.50	2.29
2월 3일	4.58	4.83	4.29	3.52	0.50	2.19
2월 6일	4.58	4.84	4.47	3.64	0.51	2.30
2월 7일	4.58	4.85	4.46	3.67	0.50	2.35
2월 8일	4.58	4.86	4.42	3.61	0.50	2.36
2월 9일	4.58	4.87	4.48	3.66	0.50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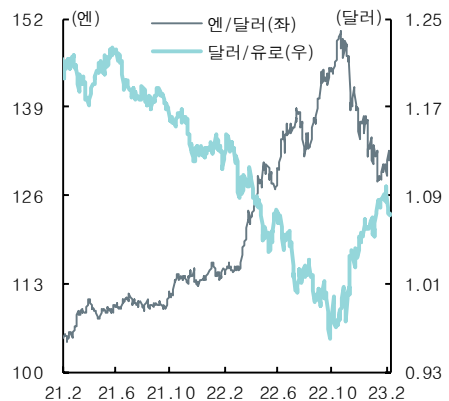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3,147.3	26,094.5	3,089.3	3,793.6
1월말	34,086.0	27,327.1	3,255.7	4,163.5
2월 3일	33,926.0	27,509.5	3,263.4	4,258.0
2월 6일	33,891.0	27,693.7	3,238.7	4,205.5
2월 7일	34,156.7	27,685.5	3,248.1	4,209.3
2월 8일	33,949.0	27,606.5	3,232.1	4,209.2
2월 9일	33,699.9	27,584.4	3,270.4	4,250.1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월말	130.13	1.087	80.9	1,945.3
2월 3일	131.14	1.079	79.8	1,876.6
2월 6일	132.62	1.073	78.4	1,879.5
2월 7일	131.08	1.072	80.5	1,884.8
2월 8일	131.43	1.071	81.9	1,890.7
2월 9일	131.62	1.073	83.2	1,878.5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2월 10일 인쇄

2023년 2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